

배우 류준열 “최동훈 감독 영화에 나오는 게 꿈이었어요”

류준열, 최동훈 신작 ‘외계+인’ 주연 맡아
현대와 고려 오가는 SF무협판타지액션물

배우 류준열(36)은 신인 시절 소속사 대표와 했던 얘기를 꺼냈다. 당시 그는 회사 대표와 마주앉아 앞으로 배우로서 가진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어떤 영화에 참여하고 싶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최동훈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류준열은 그 꿈을 이뤘다. 그는 최 감독의 6번째 장편영화 ‘외계+인’의 주연 배우가 됐다.

“어느 날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뜸 제가 본인한테 최동훈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냐고 하더라고요. 기억난다고 하니,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울컥했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외계+인’ 개봉을 앞두고 류준열을 만났다. 그는 ‘외계+인’ 3부가 나오든 4부가 나오든, 최 감독님이 드라마를 하든 웹 드라마를 하든 특별한 품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계+인’은 1부가 오는 20일에, 2부는 내년 중 나온다. ‘외계+인’은 독특한 영화다. 2022년과 1380년대 고려를 오가는 이야기인데다가 외계인과 로봇, 도시와 신전, 미래에서 온 사람과 과거에서 온 사람이 뒤엉키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검(神劍)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

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류준열은 신검에 걸린 현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나선 고려의 도사 ‘무륙’을 연기했다. 그는 우연찮게 신검을 찾는 일에 손을 댔다가 천동 쏘는 여자 ‘이안’(김태리)은 물론이고 신전·외계인·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벌인 소동에 휘말리게 된다.

장르를 구분하자면 SF무협판타지액션 정도가 될까. 어찌됐든 류준열이 연기한 무륙은 도술을 부리는 캐릭터로, 류준열은 러닝타임 내내 화려한 무술 연기를 선보인다. 그는 앞서 ‘봉오동 전투’(2019)나 ‘뽕반’(2019) 등에서 경험하긴 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액션 연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무협물 요소가 들어있는만큼 각종 와이어 액션도 소화해야 했다. 류준열은 ‘외계+인’에 출연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약 1년 정도 이 영화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간 기계체조를 배우며 액션 연기에 공을 들였다.

“촬영장에 출근하면 와이어부터 차는 거죠.(웃음) 와이어로 시작해서 와이어로 끝나는 액션 연기였어요.” 그는 와이어 액션을 영화 촬영에 비유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씩 장면을 완성해가면 그게 영화가 되는 것처럼 와이어 액션 역시

배우와 스태프가 이십전십미 되서 함께 호흡할 때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얘기였다.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와이어 액션 정도는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관객 여러분이 보는 ‘오케이 컷’은 똑같은 장면을 수십번 촬영한 뒤에 나온 마지막 컷입니다. 어렵긴 해도 일단 성공하면 희열감이 큰 게 와이어 액션이었어요.”

류준열은 그렇게 완성한 액션 장면 중에 비밀단체 밀본 본부에서 벌어지는 액션 신을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으로 꼽았다. 가장 오래 찍었고, 공을 들였다는 게 이유였다. 한 여름에 세트장 안에서 촬영한 탓에 매우 덥고 습했다고 한다. 이 장면 촬영 뒤에 류준열은 체중이 5kg이나 줄었다. “제가 그때 도포가 세 겹 정도 겹쳐진 옷을 입었어요. 가장 바깥에 입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촬영했죠. 속옷을 하루에 두 세 번 갈아입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가 최선을 다해 찍었습니다.”

‘외계+인’에서 류준열은 주로 김태리와 호흡을 맞췄다. 김태리가 연기한 천동을 쏘는 여자 이안 역시 신검을 찾는 인물. 무륙과 이안은 신검을 가운데 두고 운명처럼 얽혀 있다. 이번에 개봉하는 1부에선 그들의 인연이 일부만 드러났고, 내년에 나올 2부에선 그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 그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준열이 김태리와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두 번째. 두 사람은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2018)에서 함께한 적이 있다. 그는 김태리를 “격하게 애정하는



동료”라고 표현했다.

“리를 포레스트”할 땐 지금까지 친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많이 가까워졌죠. 태리씨는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예요. 배우로서, 그리고 배우가 아닌 그냥 류준열로서 제게 있는 두려움 같은 것을 태리씨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위안이 되달까. 영화 ‘돈’을 할 때 유지태 선배님이 동료 배우들과 가깝게 지내고 친구가 돼라고 했어요. 그게 40~50대가 됐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선배님이 한 말이 이해가 돼요.”

‘외계+인’에서 무륙은 말한다. “도란 같고

다약서 깨달을 때가 있고 문득 깨달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무륙은 자신은 문득 깨닫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류준열은 아마도 자신도 무렵처럼 문득 깨닫는 타입인 것 같다고 했다. “영화를 가지고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지 즐거운 상상을 하다보면 연기를 어떻게 할지 문득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문득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였다. 류준열은 ‘외계+인’을 하면서 영화라는 작업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문득 알게 됐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주변 분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문득 바뀐 것 같아요. 더 따뜻해졌달까요.(웃음)”

‘빼고파’ 건강한 다이어트로 전원 목표 달성



‘빼고파’ 멤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16일 방송된 KBS 2TV ‘빼고파’ 최종회에서는 3개월 동안 함께 한 멤버들의 하우스 생활이 마무리됐다. 멤버들은 이전과 확 달라진 비주얼은 물론, 올바른 다이어트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챙겼다.

멤버들은 이전까지 체중 감량을 위해 굶기만 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 살은 빼졌지만 몸은 망가졌다. 이에 38kg 감량 성공 후 10년째 요요 없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개그우먼 김신영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멤버들에게 알려주며 건강한 다이어트가 시작됐다.

‘빼고파’에서는 끼니를 굶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5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를 갖춘 김신영표 식단과 어디서나 맘 흘리며 운동할 수 있는 김신영표 운동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게 만들었다.

멋진 엄마, 멋진 댄서가 되고 싶다고 했던 배윤정은 다이어트로 성공해 아들 재울 군의 돌잔치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움 드레스를 소화했다. 하재숙, 박문지, 일주어더는 3개월 전과는 180도 달라진 비주얼을 화보로 남겼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과격적인 스타일의 옷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술이 문제였던 고은아는 이제 술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실제로 술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극단적 다이어트 부작용을 겪었던 고은아는 건강한 다이어트 덕분에 외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속까지 건강해졌음을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했다. 유정은 몰도 마시지 않던 ‘극단적 아이돌 다이어트’를 버리고 잘 먹고 잘 빼는 다이어트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빼고파’ 마지막회는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쑷컷 이효리 “방송 접으려고 머리 잘랐는데…”

가수 이효리(43)가 머리를 자른 이유를 밝혔다.

16일 방송한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개그우먼 홍현희(40)·인테리어나 디자이너 제이슨(36) 부부가 제주도에서 이효리·이상순(48) 부부를 만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홍현희는 “제주도에 우리 친인척이 산다”며 이효리를 불렀다. 두 사람은 티빙 예능물 ‘서울체크인’을 촬영하며 가까워졌다. 이효리는 “이리 오나라”라며 등장했다.

울프컷 헤어스타일로 변신해 시선을 끌었다. 최근 팬카페에 “동네 미용실 갔다가 망했다”고 남기기도 했다.

이효리는 “머리가 많이 짧아져서 어색하지?”라며 “서울체크인도 끝났고 이제 방송 좀 접어보려고 잘랐다. 너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고대기 말고 왔다고 털어냈다. 원래는 (제)이슨이 머리 정도의 (쇼트컷)이라 ‘상순 오빠가 요즘 나한테 ‘후식’이라고 부른다. 중학생 남동생이랑 사는 것 같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희는 “외국배우 같다”며 “이런 머리 어울리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상순은 “효리는 뭘 해도 예뻐”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뉴스

보아, 中 가수 류위신과 협업...이수만 기획·프로듀싱



한한령 이후 현지 빚장 풀리는 가운데 컬래버레이션이라 더 눈길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가수 보아(BoA)와 중국 싱어송라이터 류위신이 협업했다.

16일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와 류위신이 컬래버레이션한 ‘베터(Better)’ 중국어 버전이 오는 18일 오후 12시 국내외 음악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보아를 발굴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아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직접 기획 및 프로듀싱한 것이다.

‘베터’는 2020년 보아가 데뷔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규 10집의 타이틀 곡이다. 보아와 류위신이 함께 부른 이번 중국어 버전은 사랑에 망설이지 말라는 대담한 가사가 두 사람의 개

성 있는 보컬과 어우러졌다. 류위신은 중국 인기 뮤지션이다.

‘2021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 어워즈’에서 최고 댄스/보컬 가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아시아 음악 팬들이 기대하는 이유다.

특히 지난 2017년 사드(THAAD)로 인해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최근 중국이 대륙의 빚장을 서서히 풀기 시작하면서 음악업계 협업 등도 활발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태원 클라쓰’ 등 한국 드라마들이 올해 상반기 중국 OTT 등을 통해 현지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 슈가, 싸이 ‘흠뻑쇼’ 깜짝 게스트...협업곡 ‘땃땃’ 무대

예고 없이,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무대 올라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SUGA·29·민윤기)가 자신과 ‘땃 땃(That That)’을 공동 프로듀싱한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PSY·45·박재상)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

16일 대중음악계와 소셜 미디어 등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오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싸이의 여름 브랜드 공연 흠뻑쇼 ‘서머 스웨그(SUMMER SWAG) 2022’ 서울 공연 두 번째 날에 깜짝 게스트로 나서 ‘땃 땃’을 함께 불렀다.

본인이 참여한 파트를 깔끔하게 소화했다. 이후 ‘마이크 드롭’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싸이와 한 번 일사안은 뒤 무대에서 퇴장했다. 싸이는 앞서 흠뻑쇼에서 이 곡을 혼자 소화했다.

예고되지 않았던 슈가의 등장에 현장에 운집한 3만여 관객이 열광한 건 물론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방탄소년단 팬덤 이미지들은 온라인에서 들쭉했다.

슈가와 싸이는 싸이가 5년 만인 지난 4월29일 발매한 정규 9집 ‘싸다구(9)’의 타이틀곡 ‘땃 땃(That That)’으로 처음 뭉쳤다. ‘땃땃’은 슈가가 싸이와 공동 프로듀싱하고, 작사·작곡·편곡을 함께했다. 아울러 슈가는 피쳐링에도 참여해 뮤직비디오에 함께 출연했다.

이 곡은 지난 5월14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80위로 진입했다. 이미 사이에서 ‘민PD’라 불리는 슈가는 방탄소년단 팀 작업과 솔로 ‘어거스트 디’ 활동 외

에 국내외 다양한 가수들과 협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프로듀싱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다.

할시의 ‘슈가스 인터루드(SUGA’s Interlude)’, 맥스의 ‘블루베리 아이즈(Blueberry Eyes)’, 이소라의 ‘신궁곡’, 수란의 ‘오늘 취하면’, 에픽하이의 ‘채벽에’, 헤이즈의 ‘위 돈 톱 투게더’, 아이유의 ‘에잇’ 등 다양한 장르의 톱가수들과 곡을 협업했다.

작년 12월에 발매된 미국 레퍼 고(故) 주스월드(1998~2019)의 유작 앨범 ‘파이팅 디몬스(Fighting Demons)’ 수록곡 ‘걸 오브 마이 드림스(Girl of My Dreams)’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렇게 의미 있는 곡 작업 행보를 해온 슈가는 작년 가을에 싸이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었다며 그에게 먼저 프로듀싱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자신이 만든 음악에 맞는 창작자를 찾는 해안까지 갖춘 셈이다.

슈가는 거기에 피쳐링은 물론 뮤직비디오 출연 계다가 싸이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서면서 한번 협업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화끈함을 증명했다.

싸이는 지난 4월 ‘싸다구’ 간담회에서 슈가에 대해 “슈가 군과 작업하면서 곡들이 술술 나올 수 있었다. 함께 작업하면서 ‘땃. 나도 저렇게 작업했었지’라고 생각했다. 신나 보이고 열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싸이는 흠뻑쇼를 비롯 자신의 콘서트에 초호화 게스트를 자랑해왔다. 올해 흠뻑쇼도 마찬가지. 첫날이었던 지난 9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공연엔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가수 제시, 서울 공연 첫날이었던 전날엔 헤이즈와 다이나믹듀오가 출연했다.

한편 한동안 팀 활동을 되도록 지양하겠다고 예고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각자 활동과 스케줄에 주력하고 있다. 정국과 RM은 각각 세븐틴과 자우림 콘서트를 관객으로 찾았다. 제이홉은 지난 15일 ‘잭 인 박스’를 발매했다.